

1. 밑줄 친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조선시대 법령의 기본이 된 법전이다. 조선 건국 초의 법전인 『경제육전』의 원전과 속전, 그리고 그 뒤의 법령을 종합하여 만든 통치의 기본이 되는 통일 법전이다. (……) 편제와 내용은 『경제육전』과 같이 6분 방식에 따랐고, 각 전마다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하여 규정하였다.

- ① 성종 때 완성되었다.
- ② 조준이 편찬을 주도하였다.
- ③ 이·호·예·병·형·공전으로 나뉘어 정리되었다.
- ④ 세조 때 만세불변의 법전을 만들기 위해 편찬을 시작하였다.

2. 1876년 체결된 조.일수호조규에 들어있지 않은 조항은?

- ①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동등권을 갖는다.
- ② 인천과 부산에 일본공관을 둔다.
- ③ 일본인 거주지역 내에서의 치외법권을 인정한다.
- ④ 일본선박의 조선연해 측량을 인정한다.

3. 영조의 정책에 대한 서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 ㄱ. 형벌 제도를 개선해 가혹한 악형을 없앴다.
- ㄴ. 서얼 출신의 학자를 검서관에 기용하고 공노비의 해방을 추진하는 등 서얼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ㄷ. 균역법을 시행하여 양반과 상민이 똑같이 군포를 부담하게 하였다.
- ㄹ. 청계천 준설 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홍수에 대비하게 하였다.

- ① \neg , \exists
② \neg , \forall
③ \neg , \neg , \forall
④ \neg , \forall , \exists

4. 고려시대 불교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태조는 훈요십조에서 전국에 비보사찰을 제한없이 늘려 불국토를 이루도록 당부하였다.
- ② 현종 대에는 거란의 대장경을 수입하여 고려의 독자적인 『초조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고, 완료한 후 홍왕사에 보관하였다.
- ③ 광종 대 균여는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천태종을 창시하고, 교종과 선종의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④ 삼국시대부터 있어 왔던 향도를 계승하여 신앙의 결속을 다졌으며, 매향 행위를 함으로써 내세의 복을 빌기도 했다.

5. 원간섭기 고려의 국가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고려 전체가 몽골의 직할지로 편입되었다.
- ② 정동행성의 승상은 몽골의 다루가치가 전담하였다.
- ③ 관제격하의 일환으로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은 첨의부로 통합되었다.
- ④ 대막리지가 집정대신으로서 국정을 총괄하였다.

6. <보기>는 대한제국 시기의 국권 피탈과 관련된 사건이다. 이를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ㄱ.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였다.
- ㄴ. 일본은 대한제국의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두어 내정을 간섭하였다.
- ㄷ. 대한제국은 재정과 외교 부문에 일본이 추천하는 외국인 고문을 두게 되었다.
- ㄹ. 고종은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보내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하였다.

- ① $\neg \rightarrow \neg \rightarrow \neg \rightarrow \neg$ ② $\neg \rightarrow \neg \rightarrow \neg \rightarrow \neg$
③ $\neg \rightarrow \neg \rightarrow \neg \rightarrow \neg$ ④ $\neg \rightarrow \neg \rightarrow \neg \rightarrow \neg$

7. <보기>의 밑줄 친 ‘왕’ 대에 이루어진 내용을 옳게 고른 것은?

-〈보기〉-

재위 19년에는 금관국주인 김구해가 비와 세 아들을 데리고 와 항복하자 왕은 예로써 대접하고 상등(上等)의 벼슬을 주었으며, 23년에는 처음으로 연호를 칭하여 건원(建元) 원년이라 하였다.

- ㄱ. 국호를 사로국에서 ‘신라’로, 왕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다.
- ㄴ. 왕은 연호를 고쳐 ‘개국(開國)’이라 하였으며 『국사』를 편찬토록 하였다.
- ㄷ. 왕호를 ‘성법흥대왕’이라 쓰기도 하였다.
- ㄹ. ‘신라육부’가 새겨진 울진봉평신라비가 세워졌다.
- ㅁ. 연호를 ‘인평(仁平)’으로 고쳤으며 분황사와 영묘사를 창건하였다.

- [illegible]

8. 고구려의 대중국투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고구려는 요서지역을 선제공격함으로써 수나라를 견제하였다.
- ② 수 양제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 ③ 을지문덕은 당 태종의 2차 침입을 살수대첩으로 막아냈다.
- ④ 양만춘은 수나라의 별동대를 안시성에서 격퇴하였다.

9. <보기>에 해당하는 고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은정월(殷正月)에 제천행사를 행하면서 국중대회를 열었다.
-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길흉을 점쳤다.
- 형이 죽으면 형수를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물건 값의 12배를 배상하게 하였다.
- 지방 행정구획으로 사출도가 있었다.

- ① 소와 말을 순장하였고 큰 새의 깃털을 장례에 사용하였다.
- ② 제천행사는 ‘동맹’이었으며 국동대혈에서의 제사가 있었다.
- ③ 천군이 신성지역인 소도에서 농경의례 등을 올렸다.
- ④ 재해가 발생하면 왕은 교체 혹은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다.

10. 고려시대 무신정권기 정치와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신집권기 초반 정권을 잡은 무신들은 상장군·대장군의 회의기관이었던 기존의 회의체 중방을 권력기구로 삼았다.
- ② 최충헌은 군국의 정사를 관장하는 교정도감을 설치했고, 최우는 정방과 서방을 사저에 설치했다.
- ③ 김보당과 조위충은 최충헌의 집권에 항거하여 군사를 일으켰다.
- ④ 이규보는 『동명왕편』을 지어 고려가 천손의 후예인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표현했다.

11. <보기>의 사실들을 시간순으로 나열했을 때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 ㄱ.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 ㄴ. 좌·우 합작 위원회, ‘좌·우 합작 7원칙’에 합의
- ㄷ. 이승만, 정읍 발언에서 남한만의 정부 수립 주장
- ㄹ. 유엔 소총회,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 실시 결의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ㄹ

12. 조선시대 중앙통치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문관 - 궁중 도서를 관리하고 국왕의 자문에 응하는 학문기관
- ② 사간원 - 국왕에 대한 간쟁과 논박을 담당한 언론기관
- ③ 승정원 - 국왕의 명령을 신하들에게 전달하는 비서기관
- ④ 의금부 - 국왕의 명령을 받아 중대한 죄인을 다스리는 사법기관

13. 1960년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귀속재산처리법을 공포하였다.
- ② 한미경제조정협정을 체결하였다.
- ③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 ④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실시되었다.

14.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화이관(華夷觀)이라는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사대교린(事大交隣)을 기본정책으로 삼았다.
- ② 북진정책 하에 고구려 고토의 회복을 도모하였다.
- ③ 일본과 여진에 대해서는 무력진압을 위주로 하였다.
- ④ 동남아시아국가와는 교류가 없었다.

15. <보기>의 밑줄 친 ㉠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신라에서는 사람을 등용하는 데에 ㉠을(를) 따진다. [때문에] 진실로 그 족속이 아니면, 비록 큰 재주와 뛰어난 공이 있더라도 넘을 수가 없다. 나는 원컨대, 서쪽 중국으로 가서 세상에서 보기 드문 지략을 떨쳐서 특별한 공을 세워 스스로 영광스러운 관직에 올라 고관대작의 옷을 갖추어 입고 칼을 차고서 천자의 곁에 출입하면 만족하겠다.

- ① 통일신라기에 성립하였다.
- ② 국학이 설립되면서 폐지되었다.
- ③ 진골은 대아찬 이상의 고위 관등만 받을 수 있었다.
- ④ 혈통에 따른 신분제로서 승진의 상한선을 결정했다.

16. <보기>는 1927년에 창립한 어느 단체의 강령이다.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1. 우리는 정치·경제적 각성을 촉구한다.
1.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한다.
1.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

- ①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하였다.
- ② 일제에 의해 조작된 소위 105인 사건으로 탄압을 받았다.
- ③ 전국에 140여 개소의 지회와 약 4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
- ④ 1929년에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민중대회의 개최를 계획했다.

17. 조선 초기의 과전(科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과전은 성종 대까지 경기도에 한정되었다.
- ② 현직 관리에게 소유권과 수조권(收租權)을 부여하였다.
- ③ 전직 관리와 현직 관리에게 모두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 ④ 과전에 대해서 상속권을 인정해 주었다.

18. <보기> 자료의 민족 운동가들이 추진한 독립 운동에 대한 서술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8월 초에 여러 형제분이 모여서 같이 만주로 갈 준비를 하였다. 비밀리에 땅과 집을 파는데, 여러 집을 한꺼번에 처분하니 얼마나 어려우지요. 그때만 해도 여러 형제분 집은 예전 대갓집이 그렇듯이 종살이를 하는 사람이 수 없이 많았고 (……) 우리 집 어른(이회영)은 옛날 범절을 따지지 않고 위아래 구분 없이 뜻만 같으면 악수하여 동지로 대접하였다. (……) 1만여 석의 재산과 가옥을 모두 팔고 경술년(1910) 12월 30일에 큰집, 작은집이 함께 압록강을 건너 떠났다.

— 이은숙, 『민족 운동가 아내의 수기, 서간도 시종기』 —

- ① 신흥강습소를 만들어 민족 교육과 독립군 양성을 추진하였다.
- ② 대한광복군정부, 대한국민의회 등의 독립운동 기지를 설립하였다.
- ③ 간민회를 기반으로 서전서숙과 명동학교 등 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 ④ 나라를 되찾은 후 고종을 복위시키려는 목표를 세우고 전국적인 의병 봉기를 준비하였다.

19. 대한제국의 근대화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 ② 서북철도국을 설치해 경의철도 부설사업을 추진했다.
- ③ 우편학당, 전무학당, 상공업학교, 의학교, 광산학교 등을 설립하였다.
- ④ 고종 대에 비변사를 설치하여 근대화사업 전반을 관장하였다.

20. <보기>에 나열된 고려시대의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 ㄱ. 거란의 소손녕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입하여, 서희가 외교담판으로 거란군의 철수를 이끌어냈다.
- ㄴ. 노비의 신분을 조사해 본래 양인인 사람들을 환속시켰다.
- ㄷ. 송나라 사신 서공이 고려를 방문하고 『고려도경』을 지었다.
- ㄹ.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실직(實職)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모두에게 처음 지급하였다.

- ① ㄱ → ㄴ → ㄷ → ㄹ
- ② ㄱ → ㄷ → ㄴ → ㄹ
- ③ ㄴ → ㄱ → ㄷ → ㄹ
- ④ ㄴ → ㄹ → ㄱ → ㄷ

이 면은 여백입니다.